



작은 실수도 형사범이 될수 있다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두번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한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그냥 용서되지도 않고,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법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한 예를 들어보자. 영희씨는 백화점 (Department Store)에서 옷을 훔쳤다는 이유로 중절도죄 (Grand Larceny)로 기소되었다. 영희씨는 남자친구와 해어지게 되어 우울한 기분에 사로 잡혀 있었다.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고자 영희씨는 백화점으로 가서 여성 옷 코너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걸려있는 블라우스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영희씨는 얼른 그 블라우스를 입어보고 잘 어울리는지 보았다. 너무 잘 맞고 너무 예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영희씨는 남자친구와의 슬픈 작별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영희씨는 무엇에 훔쳤는지 모르지만 그 옷을 그냥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녀의 샤피백에 블라우스를 집어넣고 백화점을 유유히 빠져 나오려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백화점 경비원이 갑자기 나타나 영희씨를 붙잡는것이 아닌가. 이때부터 영희씨의 악동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영희씨는 “블라우스를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호소해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비원은 영희씨를 작은 경비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심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훔치는 장면이 포착 된 것을 보여주었다. 백화점이 허술해 보이지만, 카메라가 구석구석 다 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영희씨가 훔친 블라우스는 \$350.00 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버지니아 주에서 중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만약 \$200.00 미만의 옷을 훔치면, 경절도죄 (Petit Larceny)가 된다. 버지니아 주에서 중절도죄는 최고 20년 징역과 최고 \$2,500.00 벌금을 부과 할수 있다. 물론 \$350.00 짜리의 옷을 훔쳤다고 하여서 20년 징역살이를 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중절도죄는 일단 강옥을 갈 수 있고, 중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 다니는 상처를 준다. 더우기, 영희씨는 영주권자 이기에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민법상 추방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검사측과 협상에 들어갔다. 영희씨가 초범이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중절도죄를 경절도죄로 하향 조절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강옥형도 6개월 미만의 형량을 받았으나, 판사가 몇 일동안만 구치소에 가고, 나머지 형량은 모두 집행유예로 처리해 주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하마터라면, 영주권 까지 빼앗길 뻔했던 아찔한 고비를 넘기고서, 영희씨는 법의 무서움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젠 형사 변호도 이민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음으로, 형사사건 진행시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여야 한다.